

보도자료

퓨어스토리지-오오씨아이, 지역총판계약 체결

- 파트너십 확대로 부산, 울산, 경남 지역 본격 공략
- 신속한 기술지원 및 지역 특화된 마케팅 전개로 올-플래시 시장 확대

2014년 4월 1일 - 엔터프라이즈 플래시 스토리지 전문 기업인 퓨어스토리지(www.purestorage.co.kr, 지사장 강민우)와 영남지역 주요 협력사인 오오씨아이(www.ooci.co.kr, 대표 정일형)가 지역총판계약을 체결하고, 영남지역의 올-플래시 스토리지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이번 지역총판계약 체결을 통해 퓨어스토리지는 부산·울산·경남(부·울·경) 지역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영업을 전개, 자사의 올-플래시 스토리지 국내 시장점유율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오오씨아이는 백업시스템, 서버이중화 및 재해복구솔루션, 통합 스토리지 시스템 등을 영남권 공공 및 기업에 공급해온 데이터관리 전문업체로, 다년 간 쌓아온 이 지역 경험과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퓨어스토리지의 올-플래시 스토리지 제품을 본격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.

퓨어스토리지 아태 및 일본(APJ) 지역 담당 마이클 알프(Michael Alp) 부사장은 “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오오씨아이와 지역총판계약을 통해 지역 고객의 니즈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장 확대에 집중할 수 있을 것”이라며, “성능과 용량, 규모가 모두 뛰어난 퓨어스토리지의 올-플래시 스토리지를 부·울·경 지역으로 확대 공급함으로써, 국내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시장의 판도를 바꿔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퓨어스토리지는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위한 올-플래시 스토리지 전문기업으로, 지난 하반기부터 영남지역의 플래시 스토리지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. 지난 10월에는 부산 벡스코에서 첫 지방 로드쇼를 개최한 바 있으며, 11월에는 부·울·경 대학 전산 담당자 세미나, 병원 전산인 협회 세미나에 참석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올-플래시 스토리지 활용 전략을 소개하기도 했다.

###

퓨어스토리지에 대하여

100% 플래시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전문기업 퓨어스토리지는 데이터센터 내의 광범위한 플래시 도입을 가능하게 한다. 전통적인 디스크 중심의 어레이 스토리지와 비교해, 퓨어 스토리지는 100% 플래시



엔터프라이즈 어레이로 10배 이상 빠른 속도와 10배 이상 넓은 공간, 전력 효율성을 제공한다. 고성능 워크로드를 위해 디자인된 퓨어스토리지의 플래시어레이는 서버가상화, 데스크탑가상화, OLTP 및 실시간 분석 데이터베이스, 클라우드 컴퓨팅에 최적화되어 있다.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(www.purestorage.co.kr)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오오씨아이에 대하여

기업용 서버, 스토리지, 백업 솔루션의 기획, 구축 및 관리를 목적으로 2006년 설립된 오오씨아이(주)는 IT 솔루션 산업의 선두업체로, 고객의 가치와 정보통신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. 현재 에이에스지(ASG)사, 퀀텀(Quantum)사 CA Technologies 등의 영남지역파트너로 백업/복구 솔루션과 가상화, 서버이중화 가상화 백업 및 재해복구시스템 등의 구축, 판매 및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있다. 주 고객은 부산은행, 부산교육청, 경남도교육청, 울산교육청, 부산대병원, 동아대병원, 고신대학교복음병원, 부산대학교, 부경대학교, 한국해양대학교, 경상대학교, 창원대학교, 울산대학교, 동국산업, 쿠쿠전자, 넥센타이어, 삼성석유화학 등 관공서와 대학교, 기업, 병원이 있다.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, 유통 및 유지보수사업, 시스템통합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.

보도자료 문의 연락처

민커뮤니케이션

신지현 차장/ 신소원 A.E

02-3495-7810 / 010-8863-1305/ 010-9075-2639

itpr@mincomm.com